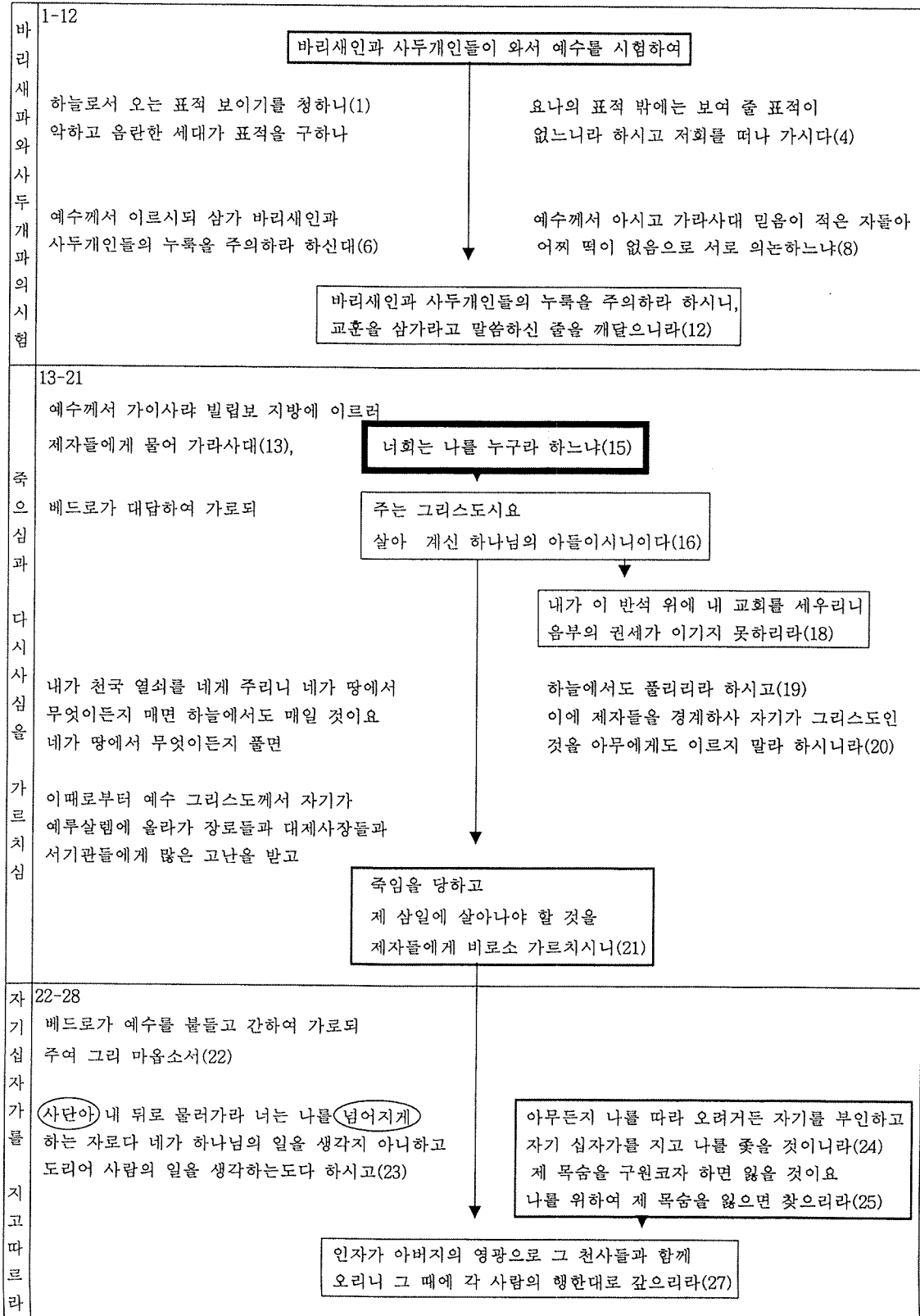


마태복음 16장 개관도표
주제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절 :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장은 마태복음에 있어서 분기점(分岐點)이 되는 장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15) 하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이제까지의 사역, 즉 1장부터 16장까지의 초점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려는데 맞춰져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직후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는 공생애가 거의 끝나 가는 말기(末期)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3년 간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증거의 초점이 어디로 옮겨져야만 하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21) 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속제물(20:28)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복음서를 증거할 때에 이 구도(構圖)를 늘 염두에 두어야만 결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 첫째 단원(1-12) 바리새파와 새두개파의 시험
- 둘째 단원(13-21) 죽임을 당할 것과 다시 사실 것을 가르치심
- 셋째 단원(22-28)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첫째 단원(1-12) 바리새파와 새두개파의 시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1).

① 12:38절에도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동기가 전연 다른 것입니다. 그 때는 자신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본문에서는 이를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란 단어가 4장에서 마귀가 주님에게 걸어온 “시험”과 동일한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험이 되는가? 주님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이라” 하는 말은, 표적을 보이면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유혹의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② 그래서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4) 하십니다. 즉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 삼 일에 살아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신 셈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다”(요 12:27). 주님은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16장에는 이러한 시험이 베드로를 통해서 재차 닥쳐오는 것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간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냉정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물리치십니다.

③ “너희가 천기(天氣)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時代)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3) 하심

니다. 이는 책망입니다.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가?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깨닫기에 충분할 만큼 많은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요”(11:13),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분별했어야만 옳았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④ 그러므로 주님은 경계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6) 하고, 저들의 잘못된 교훈을 “누룩”에 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들이 미처 “떡을 가져오지 못한”(7) 것을 책망하시는 줄로 여겼습니다. 주님은 재차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11-12) 합니다.

⑤ 이제 생각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날도 표적을 구함으로 주님을 시험하려는 자들은 있습니다. 왜 표적을 구하는가? 그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으로 족한 줄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달리 보여줄 표적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⑥ 둘째로, 이제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교훈”, 즉 누룩은 온 덩어리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 바리새파의 교훈은 열심을 내어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양 여기면서 남을 판단하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외식주의,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 사두개파의 교훈은 무엇인가? 내세도, 부활도, 사탄도 지옥도 믿지 않는 현대주의 신학입니다. 그들은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이성(理性)을 더욱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사도개파 교훈이 오늘날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로 퍼지고 있습니다.

⑦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답변은 무엇인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 1:22-24).

마태복음 16:13-28절

둘째 단원(13-21)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실 것을 가르치심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13).

① 제가 깨닫기로는 마태복음에 있어서 16장이 중심 장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한 장 안에 ㉠ 예수님이 누구인가(15-16)? ㉡ 그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21)? ㉢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24-28)? ㉣ 제자 된 우리들이 주의해야할 점이 무엇인가(5-12)? ㉤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는가(27-28)? 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6장을 중심으로 앞 부분(1-16장)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뒷 부분(16-28장)은, 그 분이 왜 오셨는가를 증거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② 주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를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15)를 물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저 북쪽 한적한 곳, 헬몬산 자락에 위치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세례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은 꼭 했습니다. 그것도 써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첫째 질문은, ㉠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이고, 둘째 질문은, “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왔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답변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말합니까? 문제는 형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몽”과 같은 분입니다 하는 대답을 신학자들까지 하는 시대입니다.

③ 주님은 “주일을 성수 했느냐? 십일조를 바쳤느냐? 금식기도를 했느냐? 전도를 했느냐” 하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 여하에 따라 사황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

④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16-17).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도서관이나 실험실에서,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 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18상) 하십니다. 이는 논란이 많은 구절이요, 특히 카톨릭에서 교황제도의 근거로 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원시(遠視)치를 못하고 근시안적(近視眼的)으로 보는 데서 기인합니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이 무엇인가? 근시안적으로 보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개인을 천국 열쇠를 위임받은 교황으로 삼으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진술한 “신앙고백”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계시록 21장에는 “하늘에서 내려오

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 두 기초석(基礎石)이 있고 그 위에 어린양의 십이 사도의 열 두 이름이 있더라”(계21:14) 합니다. 그 기초석에 베드로의 이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②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은 기독교의 초석(礎石)이 되는 고백입니다. 대제사장은 물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26:63-64),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사도들도 그 고백을 함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증거(롬 1:2)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고백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지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20) 합니다. 베드로가 모퉁이 돌이 된 것이 아닙니다.

③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19상) 하십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고받는 아파트 열쇠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엡 1:13)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모든 죄를 사함 받아 구원이요, 배척하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19)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요 20:23) 하신 뜻입니다.

④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셔서 초대 교황으로 삼으시고, 그 열쇠가 역대교황으로 계승되어 내려오는 양 말한다면 무엇에 대한 오류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아닌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휘장을 다시 꿰매고는, 그것을 열고 닫는 권세가 마치 교황에게 있는 양 횡포를 부리는 엄청난 오류임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개혁자들이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⑤ 그러므로 천국열쇠와 결부되는 결정적인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4) 한 칭의(稱義)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그러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즉 우리의 죄 때문에 천국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기만 하면 누구든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히 10:20, 4:16)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엡 3:12). 이 복음이 천국열쇠인 것입니다.

⑥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21) 합니다. 이것이 첫 번 수난 예고입니다. 주님은 벌써부터 대속제물이 되셔야 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9:15),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12:40) 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암시를 하신 바가 있으셨으나, 제자들이 감당치 못할 것을 아셨기에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는 못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를, “비로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설교자들이 이 고백을 알고 있기는

한데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제쳐놓고 딴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스럽고, 때로는 결길로 빠져도 너무 빠지는 것을 대하게 될 때 분한 마음이 들기까지 하는 것은 편협한 탓이라 하겠습니까?

셋째 단원(22-28)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22).

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한 것은 어찌 보면 베드로다운 언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하는 굳은 결의가 엿보입니다.

② 그런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23상) 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장면을 18절의 말씀과 대조를 해보십시오.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반석)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18) 하신 최고 최대의 축복을 받은 그가, 그 자리에서, 불과 몇 분 후에, “사탄, 넘어지게 하는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23)로 전락을 하는 것을 대하게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한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③ 여기에 성경의 예민함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말씀에 대한 곡해를 막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가 여럿 등장합니다.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창 6:9)는 칭찬을 받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고”(창 9:21-22)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만일 이 장면이 아니었다면 노아가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줄로 곡해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행 13:22)라 하신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만일 이 실수가 없었다면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여겼을 법합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하신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봅시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롬 3:4) 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④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마귀에게 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함이 없이 영광을 받으라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23하) 하고, 베드로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적해줍니다. 믿음의 시금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생각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남 다른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 그 충성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열심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열심히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을 통해서,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빌 2:21) 하고 이를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책망은 바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② 이를 계기로 하여 주님은 제자도(弟子道)를 교훈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거울삼아서 자

신을 점검해보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24) 하십니다. 지금은, “십자가”라는 말을 자랑처럼 합니다만 이를 처음 듣게 된 제자들은 끔찍하고 당황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십자가”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가장 참혹한 사형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따른 동기가 한 자리 할까 하고 따랐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말씀을 듣고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인가?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말라고 간했으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③ 그러므로 이 대목을 상고하는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25)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구원”하시라, 즉 십자가를 지시지 말라고 간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잃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역설(逆說)입니다.

④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27상) 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은 벌써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도표에 나타난 대로, ㉠ 하나님의 아들이, ㉡ 죽으시고, ㉢ 제 삼 일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가, ㉣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니, ㉤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느냐 물으시는 셈입니다.

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28) 하십니다. 10:2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해석이 구구한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강조점이 “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재림”이 10:23절에서는 “뿔박”과 결부되어 나오고, 본문에서는 “십자가”와 결부되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중을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림의 확실성(確實性)을 강조하심으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부활신앙과 재림의 소망만 확고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⑥ 본 장의 구도(構圖)를 보면 중심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앞부분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에 의하여 위협을 당하게 되고, 뒷부분에서는 주님을 좇는 제자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구도입니다. 현대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28)가 누구인가?